목장 모임 교재 2017년 11월 12일(주일)

"이삭 - 복의 계승"

히브리서 11:18

신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 유형입니다. 바울 유형은, 생의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형이고, 디모데 유형은 선조로부터 신앙을 이어온, 즉 모태신앙을 말합니다. 이삭은 후자에 속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삭만큼 평탄한 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선물로 받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에 농사를 지으면 백 배나 수확을 하게 되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종이 머나먼 길을 가서 데려온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 세에 불러 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창 12:2)** 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25 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백 세가 되었을 때야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 21:1)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여호와' 라는 뜻이, 언약 즉 약속의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나이 많아 늙은 사라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아들 이삭을 출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의 순종' 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질 때의 이삭의 나이를 청소년에서 청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2:6 말씀에 보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이 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20 세 전후의 노인이 되어 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한 나이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놓고 묶으려 할 때, 그리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도 그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보며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짊어졌던 예수님의 순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저항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에게는 '이 아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18-21)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결코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청춘도, 돈과 명예도 믿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다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인간적으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크게 웃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 21:2)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기한이 차야 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 3:1-2)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려 25 년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운동경기에서 그 경기를 왜 하는 것이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경기일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창 25:1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복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이 계승되었다고 하면, 단순히 재정적 유산이 상속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삭이 받은 복의 계승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이삭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어 받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창 25:5)

하지만, 이 복은 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창 25:11)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아들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복을 계승해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계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아들 이삭에게 뿐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 3:9)

그리스도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영성이 계승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 천년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경험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복이 계승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복이 이삭에게로 계승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이 워싱턴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그래서 워싱턴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삭은 아버지보다 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번제단 위에 순순히 올라갑니다.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오직 한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에 와닿거나 새롭게 결단 혹은 다짐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